

## 베를린의 신성



Classic &lt;카롤린 휘셔 피아노 독주회&gt;

언뜻 보면 다크브라운 머리카락이 매력적인 패션모델 같다. 다시 보면 깊고 모란 눈망울이 배우의 끼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13살에 이미 베를린 Bellevue성에서 피아니스트로서 두각을 보인 카롤린 피셔가 한국 팬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9살에 음악학교에 들어간 이후, 그녀는 독일과 해외에서 개최되는 다수의 콩쿠르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왔다. Jugend Musiziert 지역 콩쿠르에서 체임버와 솔로로 13차례 우승하였으며, Internationaler Jugendwettbewerb Berlin 2000에서 1위 입상하는 동시에 금메달과 청중상을 받았다. 또한 이듬해 참가한 Queen Sophie Charlotte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한 것도 모자라 전체 참가자 가운데 최고의 피아니스트에게 수여하는 금메달과, 고전 음악 해석부문에서 뛰어난 연주자에게 수여하는 Mirow Castle 메달까지 동시에 석권했으니 그녀의 어린따운 외모보다 피아노 실력이 한 수 위임이 입증된 셈. 독일 연방 제10대 대통령인 로만 헤어초크의 한국과 몽골 방문 시 문화행사에 참여하며 독일 내외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는 카롤린 피셔. 이미 한국, 러시아, 독일, 몽고에서 독주회를 갖은 바 있는 그녀는 사라예보와 코베 어린이 구호를 위한 자신 음악회, 하노버 엑스포 등 국제 행사 무대에서도 두각을 보여왔다. Hochschule für Musik Hanns Eisler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학위를 받고 장학생으로 끊임없는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그녀의 피아노 선율은 7월 첫째날 금호아트홀을 가득 채울 것이다.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스 소드', '라 캠파넬라'를 비롯 쇼팽과 베토벤의 곡들이 카롤린 피셔의 손가락 끝에서 어떻게 광채를 발하게 될지 궁금하다.

■ 우리가 리스트를  
간과 할 수 없는 이유

Jorge Bolet &lt;Memorial Editions Vol. 5&gt;



악보를 보지 않고 피아노와 한 몸이 되어 건반을 이루르는 피아니스트들은 처음부터 그래왔을까? 피아니스트들의 삶이 프란츠 리스트의 등장 전과 후로 나뉠 수 있을 만큼 그는 음악사에 뺄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리스트가 악보를 외워 피아노 건반을 정령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피아니스트들은 악보를 머리 속에 그려 넣어야 하는 운명과 맞서게 됐으니 혹자는 그를 원망할지도. 쿠바의 Jorge Bolet는 리스트의 곡들을 모아 연주 기법과 해석을 덧붙였다. 기교적이고 격렬한 리스트의 곡을 이해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터. 카롤린 피셔의 해석과도 비교해 볼만 할 것이다.

Vladimir Horowitz &lt;Horowitz Plays Liszt&gt;



'피아니스트는 자신의 악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유일한 연주자'라는 명제를 뒤집은 호로비츠는 리스트와 라흐마니노프 해석의 일인자로 손꼽힌다. '지휘자마저 저 자신의 악기인 오케스트라를 대동하고 다니는데, 피아니스트는 왜 안되지?'라는 그의 순간적인 의문은 '점보 747을 타고 하늘을 나는 피아노'를 만들어 냈다. 이 까다롭다 못해 완벽한 거장이 선사하는 다이내믹한 리스트를 만나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듯하다.